

드디어 로마로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행 28:15)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과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왜 곧바로 로마를 향해 떠나지 않고 3 개월을 그 곳에서 기다렸는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미 그 곳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대략 11 월부터 2 월 초순까지는 겨울 폭풍기간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석달 후에 과동을 끝내고 바울 일행은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이 타고 갈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배였다. 이 배의 뱃머리 장식은 '쌍둥이'였다. 헬라어 원어에는 '디오스구로' (제우스의 아들들), 그들은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다. '수라구사'에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항해하기 좋은 날이 계속됨으로 이튿날 이탈리아의 시작인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은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해외 무역의 주 항구였다. 그 곳에서 일주일을 형제들과 지내다가 로마로 가게 되었다.

로마 교회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공동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디올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사람들 중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행 2:10, 41), 그들이 돌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8:1)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이다. 로마에는 이 곳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 곳에 도착하여 바울이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일반적인 한 죄수로 취급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울일행이 배가 폭풍을 만나 모두가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로마성도들의 마중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바울일행의 소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것이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압비오 저자 (압비오 광장, 로마에서 65km) 와 삼관 (세 여관, 트레스 타베르네,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마을) 까지 나왔고 바울일행은 로마를 향해 올라가다가 압비오에서 그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들은 로마에까지 바울을 수행해 줄 것이었다. 압비오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들 가운데 하나로 특히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길이었다. 이제 그 길을 죄수 바울이 걷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 형제들을 보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로마 성도들의 밝은 얼굴을 통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일을 벅찬 가슴으로 그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출발

이제야 그 오랫동안 고대해 온 목표에 도달하였다. 이제 로마와 그리고 로마교회로부터 복음은 “땅끝까지”(1:8) 퍼져 나갈 수 있으며 퍼져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복음선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당국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24:1-8; 25:7,9) 또 예루살렘교회에 대한 고려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엄수주의는 이방 선교에 장애가 되었으며 오랫동안 이방 선교를 마비시키는 역작용을 해 왔다 (21:20-26). 복음선포는 이러한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났다.

생각하기

험난한 여행 끝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하였다. 물론 그의 로마여행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었다 (19:21). 그렇기에 바울은 배가 파선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각양의 세파와 광풍으로 시련과 위기를 겪을 것이지만 기필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